

# 여수 방사선 투과검사업체 직원 10명 피폭

### 장비 착용 소홀... 피폭 기준치 24배 초과에 일부 악성 빈혈 원안위 작업 중지 명령...4개 업체는 작업량 정보 허위보고

여수에서 작업 중이던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집단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집단 피폭이 발생하고, 일부가 백혈병 발병 전 단계인 재생불량성 빈혈(악성 빈혈)로 판정되면서 방사선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종사자 안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비파괴검사'의 일종으로 피폭자들은 여수 플

랜트사업장 등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던 중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모(32)씨 등 10명이 허용치를 넘어서 피폭된 사실을 확인,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안전관리 소홀과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업체 여수사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

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피폭선량은 100mSv를 넘었으며 이중 1명은 무려 1000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작업장에서 화학플랜트의 용접부위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거의 매일 밤 수행했으며, 이때 고소(高所)작업이라는 이유로 방사선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세 조사(염색체 조사) 결과 문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피폭

된 방사선량이 총 1191mSv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0mSv 이상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4000mSv에 노출되면 30일 이내에 약 50%의 피폭자가 사망하게 된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A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A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139억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 사무장·한의사 구속...가짜 환자 165명 입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39억 원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범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및 보험금 13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특정범죄 상 사기)로 사무장 오모(52)씨와 한의사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 실손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가짜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때 1차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가정주부와 무직자였다.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학생 자녀를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5·18 헬기사격 농단 전두환 고소

### 전일빌딩 국과수 감정서 첨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헬기총사사 증언은) 헬리콥터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또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변박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광주일보 1월 13일 1·3면, 4월 20일자 1·21면)는 국립과학사연구원의 첫 공식감정서와 2차 감정서를 고소장에 첨부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의 증언을 담은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선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조 신부를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문서, 계엄군 작전기록 등 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등 민주유공자 단체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살 주변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농단하는 회고록을 즉각 폐기하라", "전두환은 광주시민 앞에, 역사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두환은 특히 교묘한 언술로 '헬기 기총소사'를 부정하면서 성직자로서 양심의 요청에 따라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와 고 피터슨 목사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욕보였다"며 고지적했다. 5·18재단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만큼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가 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부터 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8~12월 광주·전남 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의약 리베이트 뇌물수수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선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경찰서 전 경찰서장 A총경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경찰 고위 간부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내사(수사) 대상자로

부터 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8~12월 광주·전남 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올해 5·18문학상 본상에 김혜순 시인 '피어라 돼지'

5·18기념재단은 올해 '5·18문학상' 본상에 김혜순 시인의 '피어라 돼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5·18문학상 본상 심사위원회는 김 시인의 작품에 대해 "고통과 재난으로 뒤덮인 작금의 세계에서 말이 어떻게 광공알을 지를 최고의 수준에서 보여준 시집"이라고 평가했다. 5·18문학상 신인상 심사위원회는 ▲

소설부문-최지영 작가의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 ▲동화부문-정미영 작가의 '레벨업', 박수진 작가의 '유희기한 친구'(공동수상) ▲시부문-(가작) 이은정 시인의 '흑백'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20일 오후 7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금남로)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옛 도청 역사탐방...내달 11일 시민에 개방

### 5·18 37주 행사위 계획 발표 세월호·백남기 농민 가족 초청

5·18민중항쟁의 상징적 장소이자 원형 회복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건물, 옛 전남도청이 다음달 11일 일반 시민에 개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속 예술관으로

전락한 옛전남도청에서 5·18기념행사의 하나인 역사탐방이 진행되기로 하면 서다.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옛 전남도청 역사탐방을 포함한 세부 행사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행사는 올해 5·18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 관심을 모아 ▲5·18국가공인보고서

채택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5·18외국 평화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으로 광주의 자존감 회복'을 꼽았다. 주요 공식행사는 다음달 17일 전야제, 18일 정부기념식, 20일 차량시위 재현, 27일 부활제 순으로 열린다. 올해 전야제 역

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함께한다. 광주 동·서·남·북·광산 5개 자치구도 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5·18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서울·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일지와 세부일정은 제37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블로그(http://blog.daum.net/518g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회사 창고 앞 사라진 냉장고...알고보니 고물수집상이 슬쩍

○...50대 고물 수집상이 광주의 한 회사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냉장고를 몰래 차에 싣고 달아났다 경찰에 탐미.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회사 창고 앞에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냉장고(800ℓ)를 1t 화

물차에 싣고 갔다는 것. ○...경찰은 회사 측으로부터 "멸종한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분석을 거쳐 화물차 소유주를 찾아낸 뒤 그의 지인이자 냉장고를 훔쳐간 고물 수집상 A씨를 검거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냉장고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버려려고 놔둔 것일 줄 알았다"면서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khk@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남구 주월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24평  
최저가 348,000,000  
최고가 348,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321,000,000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탁장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